

## 2022 사순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한번 더 주님은 우리에게 사순 시기라는 이 강한 전례 시기를 선물하십니다. 사순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고 부활을, 그 큰 부활 사건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고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재의 수요일 복음인 마태 6,1-6.16-18 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제시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교적 삶의 세 기둥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기도, 단식, 자선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겸손하고 단순하고 소박하게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도는 단순하고 내밀하고 깊고 감추어진 것이며,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에서 우리는 그분의 눈길과 마음만을 찾으며, 기도가 그분과의 대화가 되기를 바라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가 행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합니다. 이 기도의 시기에 우리의 모든 형제들, 인류 전체가 겪고 있는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들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단식과 참회는 바리사이들의 단식처럼 외적인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위치에서, 고통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의 태도와 행위를 돌아보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돕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려는 갈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평화를 잃게 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 단식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해치고 다른 이들도 해치는 관계들을 접어둡시다. 수많은 실망, 걱정, 약한 말들, 무관심에 대해서 단식하고, 다른 이들에게 형제들처럼 우리 자신을 열어 놓읍시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식은 우리가 다른 이들, 가장 가까운 이들, 고통받는 이들, 외롭고 병들고 나이가 든 우리 자매들의 필요에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슬픈 이들에게 힘을 주는 말들로 우리의 시간을 내어 줍시다. 친절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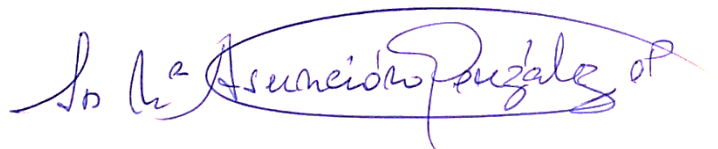
대하고 미소를 짓는 것, 격려의 말을 하는 것, 자주 보게 되는 무관심 속에서 기쁨을 주는 말을 하는 것으로 충분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께 이 사순 시기에 우리에게 사랑, 자비, 친절, 용서, 그리고 모든 이들을 받아들이는 길을 보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사순의 여정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모님이 우리에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아드님의 충실한 종이셨던 그분이 지금과 영원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한 사순과 기쁜 부활을 기원합니다.

형제의 포옹과 기도를 보내며,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ue ink, reading "Srta. Asunción González, O.P.", enclosed in a blue oval.

총장 M<sup>a</sup> Asunción González, O.P. 수녀